Jochen Ebenhoch Wacker Chemicals Korea 사장 인터뷰

"신속한 한국문화와 철저한 독일문화 융합해 발전할 터…"

◆ 한국 방문 후 첫인상과 소감은?

한국에 와서 느낀 점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서비스 수준이 높고, 친절하며 신속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한국의 기업문화는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려는 도전정신이 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의 철저하고 신중함과 한국의 도전적이고 신속함을 결합한다면 강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바커케미칼코리아는 한국과 독일 기업문화의 융화를 통해 발전해나갈 것이며 한국 고객기업들과 윈윈체제를 구축하며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것입니다.

◆ Wacker는 어떤 회사이며, 핵심 경쟁력은 무엇입니까?

Wacker는 비교적 한국에서 인지도가 낮은 편이지만 독일에 본사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배치돼 지역 고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기업입니다. 건축용 자재에 쓰이는 VINNAPAS®, 전자제품과 의료용 기기에 사용되는 ELASTOSIL®, 약품 코팅에 사용되는 HDK®, SREP (Silicones Resine Emulsion Paint)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Wacker는 스페셜티 케미컬과 전자소재 분야에 적용되는 실리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기술력도 경쟁기업들에 비해 특화돼 있습니다.

◆ R&D 투자금액이 2003년 1억5200만유로에서 2004년 3억400만유로로 증가했는데, 주력 투자분야는?

최근 차세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αSilanes이라는 Hybrid Materials을 비롯한 여러 프로젝트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 국내기업 가운데 협력하고 싶은 곳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컨셉을 개발해 적용하려는 삼성전자를 꼽고 싶습니다.

◆ 경영방침과 한국사업 비전은?

Wacker는 독일 특유의 성실함과 경영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경영문화가 있습니다. 외형적인 혁신보다 고객을 우선시하고 고객의 요구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둠으로써 연구개발과 품질개선 등 모든 분야의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근 본사와 세계 곳곳의 자회사들이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고객이 제시한 요구에 대해 정기적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996년 1월 설립된 바커케미칼코리아는 미래의 한국시장에서 기술지원 중심의 서비스와 고객 가치의 향상을 위한 솔루션들을 제공할 것입니다. 고객과 상생하는 든든한 협력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커케미칼코리아가 지향하는 비전입니다.

Jochen Ebenhoch 사장은 독일 튀빙겐 대학을 거쳐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나노실리콘을 전공하고 화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Wacker에 입사해 R&D와 기술 마케팅 및 전략기획팀에서 경험을 쌓았고 2005년 1월 바커케미칼코리아 사장에 부임했다.

<화학저널 2005/9/19>